



月刊 6
2008년 6월 1일

· 친목
· 복지후생 증진
· 언론문화 창달

발행·편집인 趙昌化

인쇄인 曠선영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

☎ 02)732-4797

02)2001-7621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E-mail kjc1405@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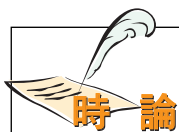
Fax 02)730-1270

大韓言論

Korea Journalists Club

SINCE 1977 - 원로 언론인들의 열린 광장 / www.kjclub.or.kr

제 267호



‘스몰 포테이토’들의 세상



박 현 태

· 본회 회우
· 전 국회의원
· 전 KBS사장

우리는 참으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해방 이후의 격심한 사회적·사상적 혼란과 6·25 전쟁의 참화를 그런대로 극복하고, 산업화·근대화를 일궈냈으며, 세계가 주목하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다.

우리가 부모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거의 없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자식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난이라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분골쇄신했었다. 그런 노력의 결과 우리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의 자녀들은 모두 고학력의 소지자가 되었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우리의 아들 딸보다는 더욱 더 키도 크고 멋이 넘치는 국제규격의 미남 미녀로 자랐다. 기대 이상의 성과였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항산(恒産恒心)’은 진실이 아니었다. 누구나 항산을 갖게 되니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지기 시작

고 해서 믿을 것이 못 된다. 모두가 스몰 포테이토(small potato)들이다. 옛날에는 훈장을 준다 해도, 감투를 준다 해도 사양하는 사람도 있었건만 요즘은 그런 사람을 찾아 볼 수 없다. 어떤 대통령 밑에서라도 감투만 준다면 못 받아서 안달이 난 사람들 뿐이다. 여당에도, 야당에도, 정부에도, 세계정세를 제대로 읽는 사람다운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지금 우리의 산업화·근대화의 기수였던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 정계의 일각에 존재하고 있지만, 아무리 호의적으로 보려 해도 이 분이 아버지의 식견이나 품격을 이어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박대통령은 처음부터 노숙한 사람이었느냐. 그가 군사 쿠데타를 결행한 나이는 불과 마흔 네 살이었다. 한마디로 지금의 정치는 천박한 스몰 포테이토들의 경연장이다.

그러면 언론은 어떠한가. 며칠 전 나는 버스를 탔다가 우연히 앞좌석 등받이에 붙여진 광고 한 장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가운데에는 불이 붙여진 길다란 담배 그림이 그려져 있다. 자세히 보니 그 담배그림에는 朝·中·東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다. ‘나쁜 건 딱 끊읍시다! 조선·중앙·동아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 친일과 매국노, 재벌족벌, 땅나라당,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편파 왜곡 물타기 하는 수구 찌라

천박한 정치와 언론, 변호사·司祭마저 ‘일탈’

어린 학생들도 나선 광우병 소란은 언제까지

했다. 누구말도 듣지 않고 내가 최고라는 자만심만 커져갔다.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무섭지가 않고, 다만 ‘내가 오로지 최고’라는 생각만 커져갔다. 재산을 더 늘리기 위해 오직 알뜰한 재테크에만 열중하게 되었다.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는 간 곳 없고 천박한 실용주의, 성과주의만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는 더욱 심했다. 쓰레기는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고, 어른들의 충고는 모두 잔소리처럼 흘려듣고, 오로지 얼마를 물려줄 작정이나에만 관심이 있다는 눈초리로 부모를 쳐다보게 되었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성공이냐?

기업주들은 오로지 기업의 존립이나 이익의 확보에만 눈이 어둡고, 법이나 국가는 안중에 없게 되었다. 이런 풍토 속에서 기업의 이익향상에 동원되던 고문변호사들은 신발을 거꾸로 걸어 신고 기업의 비리를 폭로하고 협박하는 존재로 타락했고, 신도들의 비밀을 죽을 때까지 지키며 오직 사랑과 용서로 신도들을 선도해야 할 사제들은 정의구현을 명분삼아 비리폭로집단으로 변모하였다.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었다.

정치는 더욱 한심하다. 무슨 수를 쓰든 오로지 감투만 얻어 쓰면 그만이라는 풍토가 되었다. 고위관료의 경력이 있고, 외국 유학의 학력이 있다

시...’ ‘찌라시’라니? 이 건 또 무엇인가. ‘친일파’ 어쩌구 하면서 이 사람들은 ‘찌라시’가 일본말이라는 것은 아예 모르는 것 같았다. 무식의 극치이다. 다른 신문이 잘못되었다면 보란 듯이 옳은 보도를 하면 될 것인데, 저는 근시안적 대립이나 갈등을 부추기는 천박한 부류이면서 남의 욕만 해대면 ‘아름다운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지나?

‘광우병’이 어쩌구 저쩌구 방송과 신문이 큰 일이나 난 듯이 떠드는데, 우리 국민은 자기의 건강도 챙기지 못하는 그렇게 철부지 국민이란 말이나. 설사 정부가 수입을 허용했다 하더라도 국민이 안 사 먹으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왜 떠드나.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와 촛불 데모를 하는 저의는 도대체 무엇이나? 그동안 언론계 일각에 종사하던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감히 입에 담기도, 듣기도, 거북한 말이지만 ‘방송망국론’ ‘언론망국론’이 이제는 건전한 모든 국민간의 상식이다. 우리는 하루 빨리 천박한 언론을 청산해야 한다.

우리는 시급히 우리의 품위를 되찾아야 한다.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면 타력이 필요하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라고 일찍이 박정희 대통령은 말하였다. 이것은 지금도 공감 가는 처방이다. ☞

클릭! 이 한마디

▶ “축산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데 솔직히 당혹스러웠다... 무엇보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광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가슴 아팠다.”(5월 22일 MB, 대국민 사과)

▶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분다. 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는 있어도 없앨 수야 있겠느냐.”(5월 24일 이재오 의원, 홈페이지에 미국행 인사)

▶ “촛불집회를 마치고 행진과 도로점거를 위해 일시불란하게 뛰어나오는 사람들을 보니 집회 배후에 조직적인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5월 25일 한진희 서울경찰청장)

▶ “한반도 물질 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결국 대운하 계획... 매일매일 국토해양부의 TFT로부터 대운하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요구받고 있다.”(5월 2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

▶ “최근 CNN 보도에서 드러났듯이 냉각탑은 넓을 대로 넓은 시멘트 덩어리... 연병 핵시설물 중에서 중요도가 가장 낮은 냉각탑의 폭파가 그대로 방송되면 자칫 ‘북핵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5월 23일 미 하원 관계자)

▶ “얼마나 큰 고통인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결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5월 24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중국 지진현장 방문)

▶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할 것.”(5월 19일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 日 교과서 문제에)

알림

대한언론인회-한국성과학연구소 제휴

「노년기 건강관리」강연회



대한언론인회는 회원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사)한국성과학연구소(소장·이윤수 박사)와 제휴해 노년기 건강관리에 대한 강연회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그 첫 번째 행사로 오는 6월

‘노년기의 성’ - 이윤수 박사 첫 강의 6월 14일 오후 2시 이윤수비뇨기와

14일(토요일) 오후 2시부터 명동성당 앞 로얄호텔 옆에 위치한 ‘이윤수 비뇨기과’에서 “노년기의 성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비뇨기과 전문의 이윤수 박사가 강의합니다.

이윤수 박사는 이화대학병원과 연세의료원 외래교수로 있으며 사단법인 전립선관리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들께서는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10면>

연락처 : 02)732-4797 · 2001-7621



에너지 해외의존도 97%,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보다 더 많은 에너지 수입...

대한민국에는 희망에너지가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국내 전력의 40%를 공급하는 원자력.
훨씬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원자력은 우리 경제의 희망입니다.

대한민국 희망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주**



溫故知新

지진, 두꺼비한테 물어봐

두꺼비들이 휴대폰 문자를 주고 받았다. 술한 중국 쓰촨(四川)성 두꺼비들이 그리스신화의 대지의 신 가이아(Gaia)와 데메테르, 로마신화의 땅덩이신 텔루스, 그리고 자기네(중국) 땅 ‘둥티’ 귀신으로부터 “대피하라”는 비상 e메일을 받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가 쓰촨성 지진이 나기 며칠 전부터 진앙지 원촨(汶川) 인근에서 대대적인 서바이벌 엑서더스를 벌였을 리 없다. 이쯤 되면 인간동물은 두꺼비인 섬공(蟾公)들 앞에 일제히 무릎 꿇고 그 영특한 지혜의 노하우를 한 수, 두 수 지도받아야 마땅하다. 두꺼비가 어떤 존재들인가. 태초에 우주선 타고 달에 이주해 ‘계수나무토끼’와 함께 살아온 신비적인 옥섬(玉蟾)들이 아니던가.

인간동물은 과연 만물의 영장인가? 전체 평점은 몰라도 개별과목 비교에선 여타동물에 비해 아득히 뒤진다. 오감(五感)의 능력부터 그렇다.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가우디와 스위스의 보타 등 인간과 모든 여타 동물이 참여, 건축 기술 경연대회를 연다



오 동 환

- 본회 회우
-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 시인

치자. 인간동물은 과연 금메달감인가. 아니다. 필자라면 단연 금상은 누에에게, 은상은 거미와 딱따구리에게, 동상은 까치와 제비, 벌, 개미 등에게 주고 싶다. 동상의 까치, 개미의 예만 들어보자. 서울 안산(무악산)엔 유달리 까치집이 많다. 한데 그들 주택 건축엔 톱 하나 망치 하나 쓰지 않았고 철근 한 개, 시멘트 반죽 한 줌 붓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 지독한 2002년 태풍 루사(Rusa) 때도 예의 까치집들은 끄떡없었다. 결의 아름다리나무가 꺾이고 전신주가 쓰러졌는데도 그랬다. 신비하기 그지없는 기적이다. 까치집 아래 었드려 무한한 외경(畏敬)의 예를

표하고 싶다. 호주 북부 마운트아이자(Mount Isa)와 다윈 사이의 개미사원을 가 봐도 울며불며 거기 절하고 싶을 뿐이다.

코앞의 베이징 올림픽에 모든 동물이 참여한다면 어떨까. 육상 100m 세계 신기록(9초77) 보유자인 자메이카의 아사파 포웰과 400m를 16초에 주파하는 치타와는 게임이 안 된다. 거의 모든 네발짐승이 사람보다 빠르다. 신장의 100배를 점프하고 350배를 건너뛰는 벼룩과 높이뛰기 멀리뛰기 게임이 가능하고 물속을 쏜살같이 날아다니는 물까마귀와 수영 경기가 되겠는가. 키크공의 역도, 원숭이의 체조, 사마귀새우의 복싱은?

도대체 인간동물이 뭐가 잘났는가. 물론 언어 능력 등 지능인(Homo sapiens) 점수는 우월할지 모르지만 개별 종목에선 결코 만물의 영장이 못된다. 인간을 위시한 모든 동물에 심각한 표정으로 묻고 싶다. 인간의 과학 문명은 과연 최근의 미안마 사이클론과 쓰촨성 지진, 칠레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 재해를 언제쯤 막을 수 있는가? 두꺼비 먼저 말해 보라. 22세기? 23세기? 50세기? 100세기? 영영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끔찍한 자연 변괴 앞에 인간은 두꺼비, 청개구리만도 못하다. 저들 미물에게 경애심만 표하기엔 너무나 답답하다.ㄹ



본회 주최 <건국 60주년과 언론의 역할> 세미나에 회우와 일반인 등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좌우 혼란 극복, 산업화·민주화 기여”

본회 주최 <건국 60주년과 언론의 역할> 세미나 성황

토론 이어 참석자들 질문 등 열띤 분위기

대한언론인회(회장 조창화)는 5월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건국 60주년과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문명호 본회 부회장(전 문화일보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진석 외국어대 명예교수가 ‘건국에서 6·25까지’의 제 1주제를, 남시욱 전 문화일보 사장이 ‘민주화·산업화 과정’을 밝히는 제 2주제를 각각 발표했다.

정진석 교수는 해방공간에서 미 군정의 ‘무제한적 언론자유’ 선언이 정파 신문의 난립을 초래했고 선동·선전에 앞장선 좌익언론이 득세하면서 정치·

경제·사회의 혼란이 극심해지자 결국 이를 규제하는 정책으로 선화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부수립시기에는 주도권이 우익으로 넘겨졌고 정국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남시욱 전 사장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정치권력과 타협·유착 등 일부 오점이 있었고 이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지만 언론은 4·19혁명과 6월 항쟁 등 민주화투쟁의 기폭제 역할을 했으며 군사독재와의 갈등 속에서도 산업화 정책에 대해서만은 적극 협력하는 등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민주정부를 자임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는 오히려 법을 동원한 지능적 언론탄압이 자행됐으며 건국시기와 마찬가지로 언론계 좌우대립이 표면화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제 1주제에는 김영석 연세대 교수와 남찬순 순천향대 교수가, 제 2주제에는 박명진 서울대 교수와 구종서 한국문화사연구소장이 각각 나서 한국언론의 지난 60여 년간의 공과는 물론 앞으로의 지향점 모색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으며 일반 참석자들의 질문도 이어지는 등 열띤 분위기를 연출했다.

세미나를 마친 뒤 발제자는 물론 일반참석자들이 자리를 옮겨 생맥주로 간단히 뒤풀이를 하면서 대한언론인회의 발전을 위한 난상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주제 발표 요지 8~9면>

MB, 취임 100일 국민과의 대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00일(6월 3일)을 맞아 TV방송을 통해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5월 21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이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논란, 경기 하강 국면 등에 대해 국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기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과의 대화’ 방송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KBS 前감사들 “정 시장 용단을”

강동순 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을 포함한 KBS 전 감사 5명이 5월 22일 정연주 KBS 사장의 용퇴를 촉구했다. KBS 감사를 지낸 김수득, 차종호, 조봉균, 이철호, 강동순 씨 등은 ‘정연주 사장께 드리는 공개 서한’에서 “우리 역대 감사들은 KBS를 걱정하는 충정에서 정연주 사장께 한마디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K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방송의 내용과 경영이 건실하기를 전사원은 물론 온 국민이 절실히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감사의 입장에서 볼 때 정 사장께서 지난 5년간 1천억원이 넘는 누적적자를 내고 급기야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초래한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면서 “이제 KBS가 하루 속히 정상을 찾도록 거취와 관련해 용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초대 방통심의위원장 박명진 씨

민간 독립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에 박명진(61) 위원이 선출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월 14일 오후 9명의 심의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호선을 통해 박명진 위원을 심의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998년에 방송개혁위원회 위원을, 2004년에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大言直言

주긴 주되 받을 건 ‘꼭’ 받자



이 태 영

· 본회 논설위원
· 중앙일보 섹션국장
· 명지대 객원교수

건국 60년. 우리도 이제는 어엿한 환갑이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맺힌 응어리를 풀지 못한 채 분열의 시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땅의 허리가 잘린 지 반세기가 지났건만 헤어진 가족의 눈물이 아직도 마르지 않은 상태 그 대로이니 대립의 비극은 언제나 끝날지 알 길 없다. 그래서 6월을 맞는 우리의 마음은 서글프고 답답하기만 하다.

해마다 현충일이면 어느 무명용사의 묘비 앞 꽃송이를 본다.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친 그 병사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 그리고 6·25의 슬픈 기억을 떠올리며 독립공원, 지난날 서대문형무소 자리를 맴돈다. 바로 그곳에서 서울에서 마지

화공존이니 그럴듯한 미사여구를 써가며 남쪽 관광객이 금강산으로 몰려가고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지원물자의 트럭이 줄을 잇고 있지만 그 답례로 받은 건 무엇인가? 바로 지난해까지 정부관계 부처 책임자라는 사람이 북쪽 눈치를 살피느라 “남북인지, 월북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전쟁 중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자’라는 해괴한 표현을 써온 게 우리의 서글픈 현실이다.

6·25 당시 현직 편집국장 6명을 포함하여 219명에 달하는 언론인이 납북되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보다 납북문제를 논의도 못하면서 어떻게 인권문제를 논하며 외칠 수 있는지, 북한에 1조2천억 원이나 지원하면서 단 한 명의 납북자도 데려오지 못한 정부는 할 말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분단시대에 서독은 경제지원의 대가로 포로와 이산가족을 데려왔으며 최근 일본은 메구미 가족의 슬픔으로 대변되는 납북자 송환을 위해 정부는 물론 전 국민이 나섰다. 이렇듯 나라를 위해 몸 바쳤던 유공자와 공직자들

그 6월, 기억해야 할 국군포로·납북자들 北의 배은망덕 응징할 길은 ‘상호주의’ 뿐

막 밤을 보내고 북녘 땅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납북인사를 그리며 추모의 기도를 바친다. 그 가운데는 독립을 위해 피 흘린 애국지사, 건국에 헌신한 제헌의원이나 정부요인도 있다. 납북언론인도 219명에 달한다. 필자는 그 피해가족 중의 한 사람이다.

지난 4월 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한국전쟁 납북사건자료원에서 주최한 매우 의미 있는 인권포럼이 있었다. 건국 60주년에 조명하며 6·25전쟁 납북언론인과 종교인의 비극을 다룬 자리였다. 이 포럼에서 정진석 외국어대 명예교수는 “돌아오지 못하는 피랍자를 포기하는 정부는 인권과 과거사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동안 인권과 과거청산을 기치로 내걸었던 과거 좌파정권, 말끝마다 남북화해를 외치고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두 차례나 우리 대통령이 평양을 찾아가 포옹하며 그럴듯한 말잔치와 제스처를 보였지만 납북관계의 현안이 풀린 건 아무것도 없다. 납북자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그 뒤로 남북화해니, 평

마저 외면한 나라, 북한동포의 인권과 납북자 인권에 눈을 감은채 세계 10대강국이 되면 무엇 하느냐는 한 탈북자의 분노에 찬 한마디가 가슴을 찌른다.

미국은 이 땅에 포성이 멎은 지 반백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인공위성과 첨단장비까지 동원하여 한국전에서 숨진 미군 병사의 유해, 심지어 뺏조각 하나라도 찾아내느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는 유해송환 이전에 생사확인조차 못하는 실정 아닌가. 여기서도 북측에 당당하고 단호하지 못한 우리 정부의 무소신이 나타난다.

한동안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일방적 퍼주기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었다.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인적·물적 상호왕래와 교류, 그리고 인도주의에 입각한 경제지원은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상호주의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컨대 한국정부가 미전향 장기수를 모두 북으로 보내면서 단 한명의 국군포로나 납북인사를 받지 못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7면에 계속>

‘김정일 사망설’ 해프닝

5월 26일 한 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설이 나돌아 언론사들마다 확인에 나서는 등 긴장이 감돌았다가 정부 관계기관 당국자들이 모두 사실이 아닌 쪽으로 입을 모음으로써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김정일 유고설’의 하나인 것으로 정리됐다. 국가정보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전화통화에서 “언론사들로부터 김정일 사망설에 대해 많은 문의를 받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관련 기관들의 관계자들도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정부 당국자는 “오전부터 그런 루머가 돌고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여러 곳에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니라는 반응들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밤 11시28분께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727사관양성군부대를 시찰하시었다’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36군부대 시찰하시었다’라는 제목의 두 기사를 통해 김 위원장의 잇따른 군부대 시찰을 보도했다. <연합>

북한군 대규모 영농지원

북한군 병력이 대대적으로 영농지원에 투입돼 하계 군사훈련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5월 28일 “북한 전·후방지역에 주둔한 북한군이 대규모 영농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영농지원 수준이 예년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북한군은 부대별 군사훈련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太平漫評

沈載福 본회회우



‘우국충정’에 밤잠도 못자나?

언론인이 가장 많이 읽는 언론전문지

〈신문과방송〉한국언론의 현주소를 이해하는 지름길입니다.

알찬 정보 바른 비평, 국내 유일한
언론전문종합 월간지입니다.

- 44년 전통의 언론전문지 〈신문과 방송〉
- 깔끔하고 비주얼한 편집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 언론사 입사를 꿈꾸는 예비언론인들의 필독서입니다

구독신청 신문과 방송 (02-2001-7867) e-mail press@kpf.or.kr

한국언론재단



신문시평



이 병 국

· 본회 회우
· 전 한국경제 부국장
· 한서대 대우교수

산과 들에 무성하게 자란 풀과 나무들이 넘치는 생명력으로 약동하는 5월. 우리 언론은 매일같이 '광우병 소동'으로 지새우고 있다. 신문이며 방송, 포털 등 미디어를 자처하는 모든 매체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이 곧 광우병을 동반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적인 톱 기사, 해설, 칼럼, 사설 또는 만평 등으로 도배 질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협상 과정이나 개방이후 정부의 대처가 우왕좌왕하면서 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키운 데다 언론마저 과학적 근거보다는 자신들의 '입맛'에 따른 보도로 사태를 증폭시켜 '괴담'에 가까운 한바탕 소동으로 몰고 간 것은 아닌지 냉정히 돌아볼 때가 됐다.

필자는 지난달 1일부터 17일까지

칼럼이 중요하다. 과학적 검증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민감한 문제에 혹여나 정파적인 주장에 빠지는 논조를 편 칼럼은 없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개방되자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청계천 광장에 모여들었다. 이 집회에 여학생이 인상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다. 그러자 우파 언론,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입을 맞춘 듯이 여학생들에게 '배후'가 있다고 떠들기 시작했다. 지난 수십 년 정적을 제거하고 이견을 제압하는 수단으로 '배후'라는 말을 애용해온 분들이 이 말을 꺼내는 것은 조금도 낯설지 않다."(A 신문, 5. 12)

사회 지도층이라고 자처하는 대학교수는 과학적인 검증방법이나 협상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해 바로 잡아갈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가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해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인용된 글이 주는 인상은 일반적인 지식인의 자세와는 거리감이 느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방송시평



호 천 응

· 본회 회우
· KBS청주 총국장
· 전 신성대 교수

미국산 쇠고기 청문회로 둔갑한 지난 5월 13일과 14일의 한·미 FTA TV청문회 중계방송은 먹거리에 대한 공포와 불신을 키웠고, 국론 분열을 더욱 심화시킨 본질과 다른 문제로 우리를 또 한번 슬프게 했다.

◇광우병에 매몰된 FTA청문회

FTA 청문회는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다루는 청문회로 광우병 위험을 강조하면서 미국을 악의 화신으로 매도하고 우리 정부 당국은 무능한 거짓말쟁이로 꾸중을 듣는 자리였다. 답변에 찢찢대는 정부 측의 답변 내용이나 태도가 딱하고 한심한 부분이 적지 않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청문보다 의원 식견 발표

일반적으로 청문회는 증인의 말을 듣고 충분히 설명하고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0분으로 한정된 신문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의원의 다그치는 답변에 증인이 "답변을 원하십니까"라고 답변할 태세를 갖추면 의원은 가볍게 "자, 됐구요"라는 말로 입을 막아 버리고 다음 질타를 계속하는 모양새는 안하무인으로 비쳐졌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지나친 언사와 감정싸움 까지

이번 청문회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은 K의원과 K증인의 부딪침이었다. 다행히 이 장면은 공중파에는 방영되지 않고 국회방송에서만 중계한 부분이어서 다행스런 대목이긴 하다.

K증인이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자 화가 난 K의원이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있냐"라고 다그쳤고 K증인은 참지 못하고 "사람이라니요"라고 항변했다. K의원이 되받아 "사람 아니면 짐승입니까"라고 넘겨 치는 사태까지 빚어졌고 이런 부딪침은 다음 날 속개된 청문회에서는 감정적인 논쟁으로까지 비화됐다.

동물사료 관련 신문에서 K증인이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자 K의원이 "너무나 당당하게 강화됐다고 하는 데 그럴 수 있습니까? 생각해

미친 소와 함께... 理性은 간데없고 怪談소동 판쳐

지식인 · 사회단체 인사들 칼럼 실망 과학적 검증보다 현학 · 편파에 매몰

일간지의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에 대한 시론과 칼럼을 주로 읽어보았다. 흔히 소속사의 사시(社是)를 대변하는 사실보다 칼럼이 집필자의 개성이나 관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언론사 내부 인사의 칼럼보다는 외부 집필자의 전문성이나 직업 등을 살펴봄으로써 언론사 나름의 '광우병 논쟁'에 대한 '성향'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시론과 칼럼을 보인 것은 22건의 한겨레였으며 다음은 경향신문 21건, 중앙일보 15건, 동아일보 12건의 순이었다. 서울신문과 조선일보는 각각 8건으로 적게 나타나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각 언론사의 관심과 성향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칼럼 중 외부 인사로 가장 많이 등장한 직업군은 대학교수였다. 경향신문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겨레 5건, 조선일보 4건이었다. 서울신문과 중앙일보는 각각 3건, 그리고 동아일보는 1건이었다. 전문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지식인의

외부 인사 칼럼 가운데 교수 다음으로 많이 등장한 쪽은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주부, 학생 등으로 이루어진 시민단체 관련 인사였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신문이 3건으로 뒤를 이었으나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한 건도 보이지 않았다.

'정치는 근본적으로 편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방식은 과속에 가까운 만큼 자해적이었다. 미국에서 편을 얻는 성과는 있었는데는 모지만 그 대가는 컸다. 초·중·고 학생들에게까지 조롱거리가 되었다.'(B 신문 5. 9)

무책임한 연상과 비약, 상상과 선동이 난무하는 가운데 번지고 있는 '광우병 괴담'은 정부의 대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일부 언론, 지식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처럼 사태의 진상이나 슬기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지성과 공정' 대신 '현학과 편파'를 일삼는다면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 놓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위협에 빠뜨리는 잘못을 저지를 우려가 높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B]

'광우병'이 휩쓴 FTA청문회 중계 먹거리 불신·국론분열 부추긴 꼴

청소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며 심하게 꾸짖는 의원에게 증인이 "언성을 높이시면 되겠습니까"라고 항의하자,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자세라며 주의를 주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고 사회를 맡은 김원웅 위원장은 이를 받아 들여 "증인은 주의하십시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좀 지나치거나 거칠어도 괜찮고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는 설설 기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했다.

의원의 신문내용과 다른 점을 지적하는 의원에게는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청문회를 무력화시켜도 되는 겁니까"라고 소리 지르거나 동료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설사 의원이 잘못 질문했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등의 질타는 신문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초조해하는 의원들의 과욕의 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었으나 의원님들이 좋아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시청하기에 거북스런 장면들이었다. 의원 식견 발표의 백미는 질문에 답변하려는 증인에게 "답변은 됐구요. 서면으로 보고하십시오"라는 식의 진행이었다.

보세요. 양심이 있습니까"라고 몰아세우자, K증인이 "양심까지 말씀하십니까"라고 되받았고 K의원이 다시 "대한민국 외교관들은 다 그렇게 합니까"라고 언성을 높였다. K증인이 다시 "억박 지르고 하시는 게..."라고 대응하자 다른 의원들의 고함도 터져 나왔고 K증인도 지지 않고 "여기서 고함지르실 것 아니잖아요"라고 다시 되받는 형국까지 이르렀다.

◇치타와 가젤

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힘들어 한 증인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었다. 문제의 핵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이 보이기도 했고 답변도 어눌했다.

그러다 보니 야당의원들의 집중공격을 받았는데 시청자의 눈으로 보기에 야당의원들은 동물의 세계에서 달아나는 가젤 새끼를 잡았다가 놓아주고 다시 낚아채는 치타 가족으로 보였고, 정 장관은 달아날 길이 없지만 끝까지 살아나려고 발버둥치는 가젤 새끼처럼 가여워 보이기도 했다.

증인과 의원 모두가 많은 꼴불견을 연출한 청문회였고 TV 중계였다. [B]

저멀리 칭짱열차의 汽笛은 누구를 위하여 울리나

‘티베트’는 강 건너 불 아니다

최근의 티베트사태를 지켜보면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연상된다. 우리나라가 일본제국의 무력침략으로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듯이 티베트는 벌써 58년째 중국의 압제를 받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다른 나라이듯이 티베트와 중국도 다른 나라이다. 결코 하나의 나라로 묶일 수가 없다.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니 어찌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겠는가.

철도건설은 漢族化 프로젝트

일제가 경부선·호남선·경의선 철도를 부설하여 식민과 수탈의 도구로 삼았듯이 중국은 칭짱(靑藏)철도를 티베트 식민화의 도구로 삼고 있다. 중국이 막대한 인적·물적 투자와 오랜 공사기간, 숱한 난관을 감수하며 칭짱철도를 준공한 목적은 두 가지다.

장기적으로는 태평양에서 인도양까지 두 대륙을 이어주는 이른바 ‘남아대륙교(南亞大陸橋)’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티베트의 완전한 중국화가 주목적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티베트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립정부를 유지했으나 1950년 인민해방군의 침공으로 중국의 실질적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 1959년 3월 라싸봉기로 중국과 티베트 사이에 유혈충돌이 일어났고, 그때 12만 명의 티베트인이 무자비하게 학살당했다.

만약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우리 동포(조선족)들이 독립운동을 펼친다면 이처럼 무자비한 진압과 잔인한 학살이 뒤따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이 정부 차원의 서남공정(西南工程)이니 동북공정(東北工程)을 벌이고 있는 이유도 알고 보면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을 씩부터 자르려는데 있다.

중국의 어용학자들은 “당(唐)·송(宋) 이후 쟁족(藏族) 티베트인들은 중국대가정(中國大家庭)의 일원이 되었고, 원(元) 이후 시짱(西藏) 티베트는 중국영토의 일부였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티베트인들은 “역사적으로 중국이란 한족(漢族)이 살던 황하유역 일부를 가리키는 것이고, 티베트와 몽골 등은 정통적인 중국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당연히 티베트인들의 주장이 옳다.

시대착오적인 패권주의 망상

역사적 사실을 보자. 당나라시대의 토번(吐蕃), 즉 티베트는 중국과 대등한 국력을 지닌 군사적 강국이었다. 토번의 강성한 군사력을 겁낸 당 태종은 서기 637년 문성공주를 토번의 대왕 손첸캉포에게 시집보냈다.



지난 3월 인도 히마찰프라데시주 다람살라에 있는 달라이 라마 사원 앞에서 한 동자승이 ‘살인 중단’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대에 동참하고 있다. (연합)

거침없이 달리는 중국의 ‘식민特急’

역사침탈 노린 東北工程 묵과하면 민족재앙 초래
달라이 라마 입국 막은 좌파정부... ‘굴종’의 결정판

이 사건을 두고도 중국 사학자들은 ‘토번을 부마국으로 삼아 지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티베트인들은 ‘군사력에서 밀린 당나라가 공주를 바치고 화친을 구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중국의 이런 시대착오적인 세계패권주의, 중화제국주의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에 있다. 중국정부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동원, 탐원공정·단대공정·동북공정·서남공정 등 역사왜곡과 날조작업에 주력하는 것이 모두 주변국의 역사를 중국사로 둔갑시키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하여 몽골족의 원사(元史)도 중국사로 둔갑했고, 칭기즈칸도 중국사의 영웅으로 호적이 바뀌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하여 만주족의 금·청의 역사도 중국사의 일부가 되고, 아골타니 누르하치가 모두 중국사의 영웅이 되어버린 것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고구려사와 발해사 탈취를 위한 정지작업이다. 탐원이

단대공정을 통해 요하문명의 중국문명설을 주장하는 것도 고조선사·부여사를 중국사로 둔갑시키려는 역사 강탈 행위이다.

高句麗·渤海史를 굳게 지켜야

그런 까닭에 티베트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지 말자는 것이다. 우리도 고구려·발해·부여·고조선의 역사를 빼앗기고 나면 언제 티베트처럼 중국의 일개 지방정부나 자치주로 전락할지 모르는 노릇이다.

티베트사태를 이야기하면서 달라이 라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1959년 당시 티베트의 종교적·정치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추종자 1000여 명을 이끌고 인도로 망명해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그 뒤 중국은 1965년에 티베트를 시짱(西藏)자치구로 편입해 오늘까지 지배하고 있지만, 인종과 문화와 언어와 종교가 다른 민족인 티베트인의 독립 의지까지 완전히 꺾을 수는 없었다.



황원갑

· 본회 회우
· 서울경제 문화부장
· 소설가, 역사연구가

그래서 칭짱철도를 티베트인의 한족화(漢族化)를 위한 도구라고 보는 것이다. 칭짱철도의 개통으로 달라이 라마의 입지가 더욱 좁아진 것이 사실이다. 달라이 라마는 1940년에 독도식을 갖고 제14대 달라이 라마에 취임했으며, 1951년 17세 때부터 친정을 시작했으나, 1959년 인도로 망명했다. 당시 24세. 달라이 라마의 귀국은 어쩌면 그의 생전에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자존심 상처받는 일 다시 없게

1989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달라이 라마가 못가는 나라는 자신의 고국 티베트나 중국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입국을 거절당했다. 달라이 라마는 망명 이후 전 세계 50여 나라를 순방했다. 미국·프랑스·호주·일본·태국·몽골 등 모두 중국과 수교국가였다. 이 달라이 라마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불교신자요, 1300년의 불교사를 지닌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방한하려는 것이 아님에도 입국이 거부되었다.

대승불교의 지도자요, 노벨평화상을 받은 세계적 평화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한국을 방문하지 못한 까닭은 지난 10년간 김대중과 노무현 좌파 정권이 중국정부의 눈치를 살펴 계속 그의 입국을 막았기 때문

이다. 참으로 다른 나라 보기에 도 딱하고 민망한 노릇이다.

사실 달라이 라마의 방한문제는 개인의 입국을 불허한 데서 그치는 작은 문제

가 아니다. 국가의 권위와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국을 대국으로 섬겨야 하는 변방의 소국이 아니다. 아직도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왕조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무슨 권리로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하고 종교활동까지 참견하는가.

같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였던 김대중씨도 그랬지만, 특히 노무현씨는 걸핏하면 반미·반일·자주 소리는 잘하면서 무슨 약점이 잡혔기에 중국과 북한의 비이성적 처사에는 정작 해야 할 말을 단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는가.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는 전임자들을 반면교사삼기 바란다. 티베트사태를 남의 일로만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역사교육을 소홀히 하지 말고, 특히 국가의 체신을 지켜주기 바란다. 자랑스러운 5000년 역사와 국민의 자존심에 더는 상처를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한번 짓밟힌 국가의 위신과 국민의 자존심은 회복하기 힘든 법이다.

忠·孝는 한길...충무공의 ‘思母曲’

탄신 453주년을 맞아 되돌아 본 ‘인간’ 이순신



이 용 호

- 본회 회우
- 대전일보 논설위원
- 난중일기 번역자

이충무공 탄신일을 올해도 다시 맞았다.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국가 행사이다 충무공은 1545년 4월 28일에 아버지 이정(李貞)과 어머니 초계 변(卞)씨 사이에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충무공 탄신일을 정부에서 주관하는 이유는 목숨을 걸고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쟁취해 조국을 구한 업적을 기리는 행사이다. 세계 3대 해군 제독으로 백과사전에 등재된 해전의 승리자요 애국자요 부모에 효도한 점은 3대 제독중의 으뜸으로 우리는 높이 평가하고 있다.

역사를 잘 모르고 충무공 시호를 전사 즉시 내린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충무공이 전사한 것은 1598년 12월 16일(양력)이다. 한데 충무공 시호는 사후 45년이 지난 인조(仁祖)때 충무(忠武)의 시호를 추증했고 195년 뒤에 정조(正祖)대왕이 영의정을 추증한다. 선조대왕은 충무공 전사 3년 후 순천에 충민사(忠愍祠)를 세운다. 이후 충무공의 사당은 전국적으



철갑선이다, 아니다... 논란속의 거북선.



충무공 영정.

“倭의 치욕을 씻어라” 어머니 교훈 항상 명심 난중일기 곳곳 지극효심 묻어나

서 왔을까? 누구도 관심이 없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간과한 때문이다.

어머니 변 씨는 이순신에게 자상하면서도 무척 엄격하셨다. 이순신 장군의 조국애는 어

머니의 교훈에서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난중일기 속에 “어머님이 건강하신지 궁금하다” 또 “어머님이 평안하시다니 다행하다”가 수없이 반복된다. 난중일기 가운데 어머니가 여수 진영에 다녀갈 때 “왜의 치욕을 씻어라”고 당부하고는 얼굴색도 변치 않고 돌아간 것을 항상 명심했던 것이다.

있었다. 임란이 일어나기 이틀 전 4월 11일(양력 1592년 5월 21일)거북선 뜻을 만들어 진수했고 다음날인 4월 12일 거북선의 지자포(地字砲) 현자포(玄字砲)에 대한 방포(放砲)실험에 성공했다.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4월 13일 왜군이 침입하니 하늘이 도운 것이다.

충무공의 인품과 용기와 지혜는 어디

로 20여개소나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충청도 사람들은 얼마나 느긋한지 사후 106년이 지나 유생들의 발의로 아산에 현충사를 지었고 그 몇 년 전인 숙종 14년(1693)에 충무공 묘소에 시도비를 세웠다.

유성룡이 천거한 무관 중에는 이순신과 권율이 있는데 인품을 보는 혜안이

난중일기 속의 ‘어머니’

난중일기 속에 나타난 ‘효심의 어록’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본다.

▷임진 4월 14일 - 아산 어머님께 문안차 나장 두 명을 보냈다.

▷계사 8월 9일 - 아들 회가 돌아 왔다. 어머님이 편안하시다니 다행한 일이다.

▷갑오 1월 11일 - 아침에 어머님을 뵈려고 고읍내(여천시 시전동)에 갔다. 조카 분과 같이 가서 어머님을 뵈었다. 어머님께 가니 주무시고 계셨다. 웅성대는 통에 놀라 깨셨는데 기운이 아주 가물가물해 얼마 남지 않은 듯해서 다만 눈물만 흐를 뿐이다. 어머님께서 기력은 약하시나 말씀은 착오가 없으셨다.

▷갑오 1월 12일 - 아침을 먹은 뒤에 어머님께 가보겠다고 말씀드리니 “잘가거라. 부디 국가의 치욕을 크게 씻어야 한다”고 재삼 당부하시며, 조금도 내가 떠나는 것에 싫은 기색을 하지 않으셨다

▷갑오 11월 15일 - 아들 율의 편지를



충무공의 체취가 물씬... ‘난중일기’.

받았다. 어머님께서 편안하시다니 다행이다.

▷을미 5월 4일 - 오늘이 어머님 생신인데 몸소 잔을 올리지 못하고 홀로 먼 바다에 있으니 무엇이랴 심사를 표현하랴.

▷을미 5월 15일 - 어머님 소식 못들은 지 7일 되니 몹시 초조하다. 또 조카

해(?)가 잘 갔는지 궁금하다.

▷을미 12월 6일 - 저녁에 아들 율이 들어와 어머님이 편안하시다고 한다.

▷병신 5월 3일 - 오늘이 어머님 생신인데 현수하는 술잔을 올리지 못하니 심란하다.

▷병신 윤 8월 12일 - 종일 배를 저어 밤 10시경에 어머님을 뵈오니 백발이

성성하신데 나를 보고 놀라 일어나신다. 기운이 흐려져 아침 저녁을 보전하기 어렵다. 눈물을 머금고 서로 붙들고 밤새도록 문안을 드렸다

▷병신 윤 8월 13일 - 아침식사때 곁에서 모시고 어머님 진지를 잡수시게 하니 대단히 기뻐하신다. 느지막하게 인사를 하고 본영에 이르렀다가 오후 6시에 작은 배로 밤새 바빠 노질을 했다.

▷병신 9월 27일 - 일찍 떠나 어머님 계신 곳으로 고읍천(古邑川·여천시 웅천)에 가서 뵈었다.

▷병신 10월 3일 - 어머님을 모시고 일행과 더불어 배를 타고 본영으로 돌아와 종일 있으니 즐거웠다.

▷병신 10월 8일 - 어머님이 건강하시니 다행이다.

▷병신 10월 9일 - 종일 어머님을 모셨다. 내일 진중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고 어머님이 꼭 서운해 하시는 기색이다.

▷병신 10월 10일 - 자정에 뒷방으로 갔다. 새벽 2시에 다락방으로 돌아왔다. 어머님을 하직하고 오후 2시경에 밤새도록 노를 저어 진으로 돌아왔다.

<4면에서 계속>

주긴 주되 받을 건 꼭 받자

이제는 증오할 것도, 용서할 것도 없다. 사실을 인정하든 안하든, 사과하든 안하든, 오직 인도주의 정신에서, 또 상호주의 차원에서 우리 국군

포로나 납북인사의 유해를 보내준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 행여 이산가족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 기쁨 말해 무엇 하랴. 새 정부에 바란다. 북한이 다시 협박성의 험악한 언사를 쏟아 놓는다 해서 흔들리거나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준만큼 받아내는 상호주의 원칙에서 절대로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 그 동안 평양정권은 남한으로부터 막대한 식량과 물자를 지원받으면서도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전략으로 미국만을 대화상대로 하고 대한민국은 철저히 무시하는 배은망덕을 일삼아

왔다. 게다가 기회 있을 때마다 ‘서울 불바다’ 설이나 ‘제 2의 6·25’ 발발설 등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부터는 북한의 그런 오만불손한 언동에 철저히 제동을 걸면서 주체성 있는 남북대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만 한다.

「전국 60주년과 언론의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5년 사이의 한국 언론은 이념적으로는 '좌우익의 대립기'로 규정할 수 있고, 정치 사회적인 불안정과 언론기관의 난립이라는 측면에서는 '혼란기'로도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일본 군국주의 통치의 억압 속에서 신문 발행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었던 암흑기를 벗어나 갑자기 신문 발행이 자유로워지자 수많은 신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미군정은 "문자 그대로 절대적인 언론자유"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일당 독재의 소련이 점령했던 북한과는 달리 남한의 미군정은 다원주의 체제를 도입하여 초기에는 공산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 세력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완전한 자유를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자유의 허용은 긍정적 측면도 있었지만 동시에 여러 문제점들도 드러내었다. 미군정은 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로 출발했고, 행정력도 미숙했다. 국내 정치세력은 격렬한 좌우싸움을 전개하여 사회는 혼란과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 건설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같은 이상(理想)은 퇴색되고 언론통제와 신문발행의 억제, 언론인 구속 등의 시련에 직면하였다.

미군이 진주한 직후 1945년 10월 30일

월부터 1947년 8월까지 사이에 테러단으로부터 습격 파괴된 언론기관 11개소, 피습 언론인은 55명에 달했다. 군정당국에 검거된 언론인은 105명이나 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1946년 5월 18일 조선정판사의 위조지폐사건을 계기로 미군정의 언론정책은 바뀌었다. 5월 29일 군정법령 88호 「신문급 기타 정기간행물 허가에 관한 건」을 공포했다. 법령의 골자는 발행의 '허가제'였다. 미군정 실시 후 짧은 기간이나마 신문발행의 '등기제'가 실시되던 것이 다시 일제 때와 같은 '허가제'로 되돌아 간 것이다. 군정법령 88호는 미군정이 종식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까지 미군정의 나쁜 유산으로 살아남아서 신문발행을 억제하는 근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언론탄압 도구로도 악용되었다. 자유당 정권하에서 군정법령 88호는 그 적법성 여부의 논란이 있었으나 1961년 12월 30일 「외국 정기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법률 제903호)이 공포되면서 정식 폐기되었다. 군정정이 법령 88호



정진석

- 본회 명예회원
- 관훈클럽 사무국장
- 한국외대 명예교수

국장) 등이 체포되었다.

해방공간에 많은 언론인들이 정계로 진출했다. 정계를 주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언론인 출신들이었다.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의 언론정책을 계승하면서 공산주의자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고 경직된 태도를 취했다. 남북의 대결이 첨예화하고 남한에는 아직도 공산주의 세력이 남아 있으면서 북한 정권과 공산당에 동조하는 세력은 극렬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1948년 4월의 제주도 폭동, 정부 수립 후 10월의 여수 순천 반란사건 등이 일어나고 시국이 불안정했던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비방하는 논조를 견지하는 간행물도 적지 않았던 시기였다. 그러나 미숙한 행정력으로 인한 언론과의 갈등에 경직된 반공정책으로 정부와 언론은 긴장관계가 조성되었다.

광복 이후 6·25전쟁까지의 언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미군정은 정치와 행정에 별다른 경험이 없고 한국사정을 전혀 모르는 아마추어 소수 미군 장교들에 의해 준비 없이 시작되었다. 미군정의 언론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었다.

첫째, 신문 통신 잡지 등의 간행물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일시에 쏟아져 나오도록 하여 오히려 역기능적인 부작용도 초래하였다. 사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작



일반 참석자가 '과거 언론'에 대

해방공간에서 6·25... 혼란 극복

에 공포한 군정법령 제19호 제5조는 '신문 기타 출판물의 등기'를 규정하여 우리 언론 역사상 처음으로 신문 발행의 등록제를 명문화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일제 치하에서 한국인들에게는 신문발행을 허용하지 않던 억압이 일시에 풀리자, 신문발행을 정치활동의 한 방편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만든 신문도 많이 나타났다. 정론지들의 속출로 인한 극단적인 대립은 반대파들이 신문사를 테러의 대상으로 삼도록 만드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대표적인 좌익지로는 조선인민보(1945.9.8~1946.9.6), 해방일보(1945.9.19~1946.5.18), 노력인민(1947.6.19~1948.1) 등이 있었고, 1948년 5월 10일의 총선거를 전후하여 선거 반대, 투표의 무효를 주장하는 좌익논조의 과격한 선동도 계속되었다. 좌우익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논조에 불만을 품은 테러단이 신문사를 공격하고 출판노조는 수시로 파업을 강행하여 신문이 발행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삼상회의(三相會議)에서 신탁통치 결정을 발표한 때부터 언론은 좌우익으로 나뉘어 첨예한 대립을 나타내면서 언론 테러가 빈번히 일어났다. 1946년 전반기의 여러 차례에 걸친 테러사건 가운데서도 미·소공동위원회의가 휴회된 직후인 5월 12일 독립쟁취국민대회에 참가했던 군중들이 좌익계 조선인민보, 자유신문, 중앙신문 등을 연달아 습격하여 인쇄시설을 파괴한 것이 가장 큰 규모였다. 1947년에도 언론기관과 언론인에 대한 테러가 빈발하여 1946년 9

로 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당시의 정세가 좌우익의 투쟁과 정파간의 이합집산 등으로 몹시 혼란스러웠고, 좌익 언론의 규제가 불가피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군정 3년 간은 언론인에 대한 사법처분과 신문의 행정처분이 빈번하였고, 언론인 구속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기록을 남겼다.

정부수립 한해 전인 1947년 7월 2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제102차 본회의는 반민족 부역자, 부일 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부일 협력자를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입설(立設)된 경제적, 문화적 각 단체급 언론기관의 지도적 간부" 가운데 죄적(罪跡)이 현저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다. 1948년 8월 5일 제헌국회는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한 친일파나 부일협력자 처단을 위한 법 제정을 논의하여 9월 7일에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10월 23일에는 첫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아 반민특위가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반민특위는 1948년 1월 10일 이후 친일행위를 한 부역자를 체포하기 시작했다. 언론인 가운데는 이광수와 최남선을 비롯하여 최린(매일신보 사장), 이성근(매일신보 사장), 정국은(국제신문 편집국장), 이종형(대동신문·대한일보 사장, 민중당 당수), 김동진(매일신보 전무), 홍 찬(평화신문 사장), 이종각(친일지 〈신민〉 발행인: 1925.5.10 창간), 김동환(시인, 일제하 월간 〈삼천리〉 주간), 주요한(동아일보 편집

회의 혼란, 영세한 언론사의 경영상태, 급조 양산된 언론인들의 자질, 때로는 언론 자체가 지닌 부정적인 체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언론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의 건설이라는 이상은 퇴색되면서 당국의 언론통제와 신문발행의 억제, 언론인 구속 등의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다.

둘째, 1945년과 그 이듬해 초까지는 좌익 언론이 주도권을 잡아 사회적 또는 정치적인 혼란을 야기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선동적인 좌익언론이 쇠퇴하고 언론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셋째, 무절제한 정파신문(政派新聞)과 좌익 언론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군정은 군정법령 88호를 공포(1946.5.29)하여 장차 언론 탄압에 악용할 근거를 만들고 말았다. 일제의 탄압으로 민족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때가 없지 않았던 것처럼 광복 이후의 언론 역시 정치권력과 마찰 또는 대립과정에서 많은 시련과 굴절을 경험한 것이다.

정부의 수립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착에는 신문의 역할이 컸다. 신문은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정부 수립 이후에도 민주주의를 정착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동시에 국가 건설에 기여했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200명이 넘는 언론인들이 남북 당하는 참화를 입었으며 폐허 속에서 신문을 발행하면서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다.



행사를 끝내고 참석자들



뒤풀이는 역시...생맥주로 목을

역할」 세미나

주제 발표 요지



으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다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축이며 환담을 나누는 참석자들.

한국언론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난 60년간의 압축적인 나라 만들기(Nation-Building)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했다.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혁명 수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정부의 산업화정책에 협력해서 신흥공업국가 단계를 거쳐 선진민주복지국가의 토대 마련에 기여했다. 한국언론은 정치와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타 분야의 발전, 즉 교육 문화 복지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포함한 광의의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적지 않게 공헌해 왔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한국언론이 민주주의 발전과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역대 권위주의정부와 투쟁한 것은 강한 권력을 지향하는 정권과 민주주의와 권력의 분산을 추구하는 언론의 속성에 따른 숙명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교육받은 민주주의자였지만 신생 대한민국의 정치는 권위주의통치를 특색으로 하는 2차대전 이후의 다른 개발도상국의 정치 수준을 넘지 못했다. 5·16군사정부의 등장 역시 1960년대에 제3세계를 휩쓴 군부 쿠데타의 물결이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개발독재정권인 박정희 정부와 언론의 갈등은 필연적이었다. 70년대에 들어서는 유신선포와 긴급명령 발동, 그리고 상시적인 검열체제 아래서 언론의 저항이 그치지 않자 광고탄압이라는 언론사상 초유의

통해 연간 9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마이너신문과 지방신문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노정권 역시 언론을 굴복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한국언론이 민주주의발전에 역행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봉사를 제대로 못한 사례도 많다. 첫째 정파신문(政派新聞)의 성격이 강했던 1960년 초 이전의 한국신문들은 대체로 특정정치세력을 두둔하고 그 대변자가 됨으로써 공정한 보도와 의제설정, 그리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저해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장면정부 때까지의 정파신문시대의 편파보도를 들 수 있다. 민주당 신구파의 대립이 격화되자 각 신문은 민주당 신파 또는 구파에 유리한 편향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정쟁을 부채질 했다. 이런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는 4·19혁명 이전부터 군사쿠데타를 음모했던 군부혁명세력에게는 더 없이 좋은 명분이 되었다. 둘째, 어용언론의 진실왜곡과 국민오도이다. 이승만 정부 때 정부기관지가 비판언론과 비판세력에 대해 역공



남 시 옥

- 본회 회우
- 전 문화일보 사장
- 세종대 석좌교수

해서 가장 분명하게 협력적이었던 시책은 아마도 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일 것이다. 야당 지도자들과 일부 지식인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기공식이 1968년 2월 1일 열리자 유력지인 D지는 이튿날 사설에서 “꿈의 첫 삽을 들었다”고 찬양하고 “(전국)을 1일생활권으로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계획 자체가 유사 이래 우리 스스로가 품어온 가장 거창한 꿈”이라고 논평했다. 또 다른 유력지인 C지는 같은 날 사설에서 “기나긴 세월 너무나 가난하게 몸을 움츠려 살아온 우리에게 어깨를 활짝 펴게(하는) 획기적인 힘줄”이라고 경부고속도로 기공을 격찬했다. 그해 2월 말 정부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석유류세법안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통과시켰다. 이때도 이들 두 신문은 사설에서 고속도로계획 자체가 아닌, 국회에서의 여당의 날치기 법안처리를 비판하는 정도에 그쳤다.

대한민국의 건국→산업화→민주화→세계화 과정, 즉 근대 국민국가 만들기가 불과 반세기 만에 이룩된 초고속 성장과정이었다. 한국의 언론산업도 세계 언론사상 유례없이 급속한 발전과정을 보였다. 한국은 선진국 신문들이 수 세기 동안 걸어온 모든 과정을 단기간 안에 주파했다. 대한민국 건국 1년 전인 1947년 현재 가장 부수가 많은 중앙지가 불과 6만

산업화 · 민주화 과정에 큰 기여

사태가 일어났다. 이 같은 언론통제는 1980년부터 시작된 신군부통치기간 동안에도 계속되어 언론장악을 목적으로 언론사를 통제하고 900여명에 달하는 언론인 해직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1987년의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6월 항쟁이 일어나자 마침내 군부는 이에 굴복, 개도국 정치의 특징인 군사독재가 마감되었다. 언론은 이때도 4·19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 6월항쟁에서 언론이 무임승차를 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잘못된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화조치가 곧 언론자유를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김대중정권 이후의 언론탄압은 오히려 법을 동원한 훨씬 지능적인 것이었다. 언론이 김대중의 대북유화정책을 비판하면서 정치권력과 갈등관계를 빚자 정부는 비판적 신문사에 대해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어 800억원씩의 엄청난 추징금을 부과하고 사주를 구속했다. 만약 당시에 구속된 언론사 사주들이 교도소에 가지 않으려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오늘의 한국언론 상황은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언론과 정권의 대립은 좌파적인 노무현시대에 더욱 격화되었다. 언론과의 전쟁을 공언한 노무현정부는 보수언론을 약화시키기 위해 언론관계법을 개정, 제도적 법적 행정적 조치들을 통한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그 극단적인 예가 기사실 폐쇄조치이다. 노정권은 보수적인 주류언론을 견제하기 위해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 설립, 지방신문지원제도 도입 등을

을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승만정권 말기인 1955년 정부기관지였던 S신문은 ‘정부비판의 한계성’이라는 사설에서 야당지를 비난, 신문사간 논쟁을 유발했다. 이 신문은 4년 후에는 경향신문폐간사건에 대해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성명을 내자 “편협은 어찌하여 이와 같은 유해한 언론을 옹호하고 그러한 유해한 언론을 막으려는 조치에 항거하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유신독재시기에는 한국신문협회가 유신을 지지하는 결의를 했으며 5공 신군부정부 당시에는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가 군부의 강요로 언론통폐합과 언론계정화를 결의했다. 셋째, 2000년대에 나타난 특이한 현상으로, 언론사간에 좌우이념 대립이 일어나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상대방 언론을 공격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넷째 언론은 김영삼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세계화정책으로 일어난 외환위기를 예견하는 보도를 사전에 충분히 하지 못해 경제파탄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는데 공범처럼 되었다. 이점은 한국언론의 일대 오점이다.

한국언론은 정치적으로는 정부와 갈등을 빚었지만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정부의 산업화정책에 공감해서 협조적이었다. 언론은 정부의 수출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보도했는데 그 대표적인 기사가 1966년부터 약 1년간 D일보에 연재된 ‘코리아의 고동—세계로 향하는 한국, 한국인, 한국상품’이라는 해외취재 장기 연재물이었다. 언론이 박정권의 경제개발정책에 대

여부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미 1990년대부터 공칭 200만부를 주장하는 대신문들이 등장했다. 신문산업의 토대인 광고비총액은 1960년대 말부터 작년까지 사이에 800배 늘어났다. 광고비의 증가는 같은 기간 동안 1인당 국민총생산이 110배 증가한 것 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이다. 한국신문이 정파신문에서 벗어나 독립지로 변신한 것도 1960년 중반기였다. 현재 한국의 신문은 일간지의 총부수에서 세계 10위권에 이르고 있으며 광고는 세계 11위에 달했다. 라디오 TV 등 구매체들 뿐 아니라 인터넷 신문 등 신매체도 하드웨어 상으로는 세계의 최선진국 수준에 이른다. 서양보다는 약 200년, 중국보다는 약 40년, 일본보다는 약 20년 늦게 근대신문이 발행된 한국은 불과 1세기여 만에 최소한 외형상으로는 서구수준에 도달했다.

건국 60주년을 맞은 한국언론의 당면과제 역시 많다. 이제 권력으로부터의 언론자유 침해위험은 현저하게 사라졌으나 대자본과 광고로부터의 제약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상당수 신문사들은 현재 TV도 겸영해서 여러 계열기업을 거느리는 거대한 정보산업그룹으로 변신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뉴미디어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생존경쟁의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자칫하면 언론사가 지나치게 정부에 협력적이 되어 언론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스스로 제약하는 결과를 오게 할 위험이 있다. 이점은 건국 60주년을 맞은 한국언론이 당면한 새로운 도전이다.

“폭포처럼 시원하게...”

고령화·서구식 식생활이 원인... 발리 손 써야

이윤수 (명동이윤수비뇨기과 원장)

‘소변을 시원하게 볼 수만 있다면...’
언제부터인가 어린애처럼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못하고 보아도 본 것 같지 않고 팬티에 지리는 일이 발생한다. 나이를 먹어서 그러려니 하며 체념하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소변증상은 전부 전립선이라는 기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전립선의 가장 큰 특징은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장기라는 것이다. 젊어서는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생식에 중요한 기관일 수 있으나 나이를 먹으면 전혀 신체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관에 불과하다. 그러나 위치가 묘

하게도 방광 바로 밑에 있으면서 한가운데로 요도가 관통을 하다보니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보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크기는 20gm 정도의 호두알 정도이며 주위로 배뇨와 발기 사정에 관련된 근육과 신경이 붙어있다.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으로 나누어지는 전립선질환은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히 생기는 병으로 알고 있다. 실제 50대에는 50%, 60대에는 60%, 70대에는 70%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나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론 젊어서는 전립선염이라고 하여 젊은 남성에서 잘 생긴다.

전립선질환이 증가하는 이유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다. 서구적 식생활로

전립선 질환 치료

고기류와 고지방식품 섭취의 증가는 전립선암의 증가를 가져왔다.

과거 호박 당근 시금치 등 녹황색 야채와 콩으로 만든 완장 두부 마늘 등의 식단은 전립선암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음식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서구화된 식생활로 육류 특히 붉은 살코기를 많이 섭취하면서 전립선암이 늘고 있다.

전립선비대증의 원인은 유전적 인자, 식생활, 동맥경화 및 인종 간에 차이가 있다. 특히 내분비기능이 저하되는 고령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점을 볼 때 남성호르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백인이 동양인보다 흔하며 채식보다는 육식에서 높다.

초기에는 소변을 자주 보거나 자다가 1~2번 이상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증상이 있다. 소변을 볼 때 한참 뜸을 들

여야 소변이 나오거나 오줌줄기도 점차 가늘어진다. 증상이 심해지면 소변을 본 뒤에도 개운하지 않고 또 보고 싶어진다. 소변이 방울방울 떨어지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다행히 현대의학의 발달은 간단하게 소년 때처럼의 시원한 오줌줄기를 되찾게 해주었다. 폭포수같이 쏟아져 내리는 시원한 물줄기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물론 소변을 잘 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립선암이나 성기능개선을 위해서도 전립선 건강은 중요하다.

“뇌를 업그레이드 하라”

산 이름 등 무엇이든 암송
운동·섭식도 전략적으로

기억력 쇠퇴는 노년기의 불가피한 증상일까? 성균관대 심리학과 이정모 교수는 뇌의 노화를 막는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운동과 섭식을 꼽는다. 운동은 보통 팔다리의 움직임으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조깅, 무용, 에어로빅 등을 잘 하려면 움직임을 계획하고, 연결, 통제, 조정하기 위한 고도의 인지적 작업이 필요하다. 뇌의 왕성한 활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 산딸기, 당근 등 항산화 음식도 뇌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뇌의 정보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여러 가지 인지적 작업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크로스워드 퍼즐을 매일 풀어보는 것도 좋고, 고서정주 시인처럼 산 이름이나 지명암송 연습을 하는 것도 좋다. 기억 용량을 늘리기는 어렵겠지만, 계속 업그레이드는 시킬 수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기억술 관련 책을 읽어보고, 자기 나름대로 적합한 기억 전략을 개발해 볼 수 있다. 불필요한 정보에 주의가 산만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어보거나, 녹음을 해 다시 들어보면서 쓸데없는 생각이나 말을 주변에 흘리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모니터하는 일도 필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일은 주위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넓고 깊은 인간관계를 맺는 일이야말로 인지능력을 향상, 유지시키는 근본이다.

〈한국일보〉

이한장의 사진



현 원 복

- 본회 회원
- 서울신문 과학부장
- 성대 한양대 교수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씨 이야기가 화자되는 요즘 새삼 41년 전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발사가 우리나라 언론에 미친 충격을 되돌아보게 된다. 스푸트니크를 계기로 전개된 미국과 구(舊)소련간의 우주 개발경쟁이 치

열해지자 서울의 일간지들은 앞 다퉈 과학부를 신설하는가 하면 과학전문기자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1969년 7월 미국의 아폴로 우주선이 암스트롱 등 우주비행사들을 달에 올려놓을 때까지 우리 신문들도 10여년간 과학기사가 심심치 않게 1면 톱기사를 차지하면서 과학저널리즘에 무게를 실게



왼쪽부터 전 조선일보 및 중앙일보 과학부장 이종수(李鍾秀·作故), 전 서울신문 과학부장 현원복(玄源福), 심승택(沈昇澤·作故), 전 동아일보 과학부장 김재관(金在灌·현 월간 자동차생활 사장).

과학저널 개척자들 한자리에... 1986 과학부장 서미트

되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1986년 가을 우리나라 신문 과학저널리즘을 개척했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한국일보 과학부장을 지낸 심승택(沈昇澤)씨의 고희(古稀)를 축하하기 위해 조출한 향연과 문집을 마련했다. 심 선배는 1930년대부터 조

선, 동아 등 도 하신문들이 한국의 “에디슨”

이라고 표제를 뽑을 정도로 이름을 날리던 “소년 발명왕”이었다. 그는 오늘날의 비파괴검사법과 같은 “자기 탐상법(磁氣探傷法)”을 비롯하여 모두 34건의 공업 소유권을 가진 프로 급 발명가였다. 말년에 병마에 시달렸으나 소년 같은 천진한 웃음과 위트를 잊지 않았다.

SHARP

샤프가습공기청정기를 **이유**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신제품



- 항알레르겐 항바이러스, 제균 HEPA필터
황사 미세먼지, 알레르기 원인물질, 각종 세균 제거
- 공기정화력 2배, 탈취력 3배 향상
살균이온발생기 2개 탑재로 공기청정능력 향상
- 눈으로 효과를 확인하는 먼지모니터 채용
9단계로 오염상태 감지 / 램프로 정화과정 체크
- 일반 가습기보다 뛰어난 가습력
시간당 760ml의 가습량 / 4.30의 대용량 물탱크
- 최적의 습도를 만드는 자동제어시스템
바이러스 활동 억제 / 목, 코, 피부의 건조 방지
- 강력한 순환기류로 실내먼지 제거능력 향상
20도 노출각도의 호른 메카니즘 탑재

KC-C150K
물출된 물통은 열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세라믹 질감이 느껴지는 新디자인 적용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및 알레르기 원인물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까지 제거
※본 제품은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기기가 아닌 질병예방 차원의 건강보조기기입니다.

■제품문의: (02)3660-2000(대) ■전국대리점, 유명백화점, 대형할인점, 하이마트, 전자랜드21, 유명인터넷 쇼핑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AS센터: (전국)1588-8333

샤프+살균이온가습공기청정기

샤프전자(주)
www.sharpkorea.co.kr

세상사는 이야기

(下)

“商街를 살리자”



정용석

· 본회 회우
· KBS 취재주간
· FM분당방송 대표(현)

변화가 3년 뒤면 폐허화

내가 살고 있는 분당의 중심지는 서현역 일대의 로데오거리다. 백화점·음식점·학원·영화관·술집이 몰려있는 상가다. 하루 통행량은 20만~30만 명으로 추산되는 변화가다. 15년전 분당이 처음 만들어질때 상가의 중심지가 바로 이곳이다. 그런 서현역이 지금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 다가는 길게 잡아도 3년 후에는 폐허의 거리가 될 것으로 나는 전망하고 있다. 왜 3년이나 하면 바로 인근에 판교가 들어서면 서 새로운 상가가 탄생하는 시점이 앞으로 3년 후이기 때문이다. 판교에 3만 세대의 집 단주거지가 들어 서고 최대의 백화

점과 상가가 들어서면 분당의 중심축이 판교로 옮겨질 것이 분명하다.

이런 비관적인 상황전개를 뻔히 보면서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인가. 누군가가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 지역 언론이 앞장서야 할 것이고 그 중심에 지역 FM 라디오 방송인 분당방송이 나서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마, 잘 될 것이지’ 하고 뒷짐 지고 편안히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여론 조성의 선두에 서기로 한 것이다.

서현역의 몰락을 예견하는 사람들은 나 뿐만 아니었다. 상가번영회·시민단체·지역출신의 시의원 등 많은 사람들

이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도 구심점이 없어 보였다. 이런 여론은 ‘서현역 상가 활성화 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이 탄생하는 계기가 만들어 졌다.

생방송 인파 몰려 활기 넘칠듯

FM분당의 스튜디오가 서현역 상가의 중심지에 있어 방송사 대표인 내가 이 조직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나의 목표는 딱 한가지다. 로데오거리 중심지에 오픈스튜디오를 만들어



앞으로 달라질 서현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 중간부분의 유리집이 오픈 스튜디오.

분당 중심축이 판교로... ‘서현역’ 몰락 불 보듯 지역방송이 새로운 활로 모색의 구심점 부상 오픈스튜디오 세워 ‘문화명소’ 조성 꿈

보자는 것이다. 그곳에서 노래자랑, 현장 인터뷰, 좌담회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방송을 하겠다는 것이다. 로데오 거리를 문화의 광장으로 만들어 보려는 것이다.

공동체 라디오의 본뜻 살려

상인들의 관심사는 볼거리·먹거리·쇼핑의 중심지로 많은 사람들이 24시간 모여들 수 있는 상가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볼거리를 만들어 주어야하는데 동네밴드가 동원되고 아마추어들의 노래자랑이 정례적으로 등장하면 이러한 상인들의 욕구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KBS 동경특파원 시절, 사무실 부근의 시부야 중심지에서 문화의 거리가 성공하는 사례를 보았다.

시부야 네거리에 유리로 둘러싸인 2층 부스 앞에는 언제나 많은 인파들이위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곳에는 인기 연예인들과 가수들이 생방송에 출연하고 있었다. 나의 꿈은 시부야에서 본 바로 그런 스튜디오를 분당의 서현역에 옮겨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가 실현될 것인지는 여부는 아직은 매우 유동적이다. 예산권을 쥐고 있는 성남시, 문화의 거리를 원하는 여론조성, 어지러운 간판들을 확 바꾸어 보려는 상인들

의 동의 등등. 장애물이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다.

지역 FM 라디오 방송을 외국에선 <COMMUNITY 라디오>라고 부른다. 지역민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라는

뜻이다. 상인·공무원·정치인·문화인 등 지역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커뮤니티의 목표다. 공동체 라디오가 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방송이라는 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본다. 서현역이 새로운 거리로 탈바꿈하면서 전국의 명소로 이름을 날리는 날 커뮤니티 방송을 보는 시민들의 눈이 달라질 것이다.

꿈은 멀리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다. 나에게서는 바로 눈앞에 꿈이 기다리고 있다. “세계 두드러지자. 그러면 문은 열릴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외치면서 출근했다.

한국기자협회 ‘Press Card’ 를 아시나요?

- I 한국기자협회는 전·현직 언론인의 품격과 복지를 위해 'Press Card'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II 한국기자협회에서 발행하는 'Press Card'는 이렇습니다.

연회비 평생면제 · 농협하나로마트 2%할인 · SK주유소 50원 현장할인
영화할인(인터넷예약 및 현장할인) · 놀이공원할인 · 별초대행 및 장례알선 서비스
기타 뉴서울호텔(중구 태평로), 설악파크호텔(설악동) 40%할인 등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업체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journalist.or.kr 참고)

III 제출서류

- 신청서 (기자협회 또는 농협중앙회 광화문지점에 비치)
- 사진1장 (사진이 없으면기자협회 마크가 들어갑니다)
- 신분증 앞면 사본 1장

※ 문의 : 한국기자협회 사무국 (02-734-9321)



서울대학교출판부의 책은 우리 미래의 문화재입니다.



사업 성공의 「秘書(비서)」

경영사례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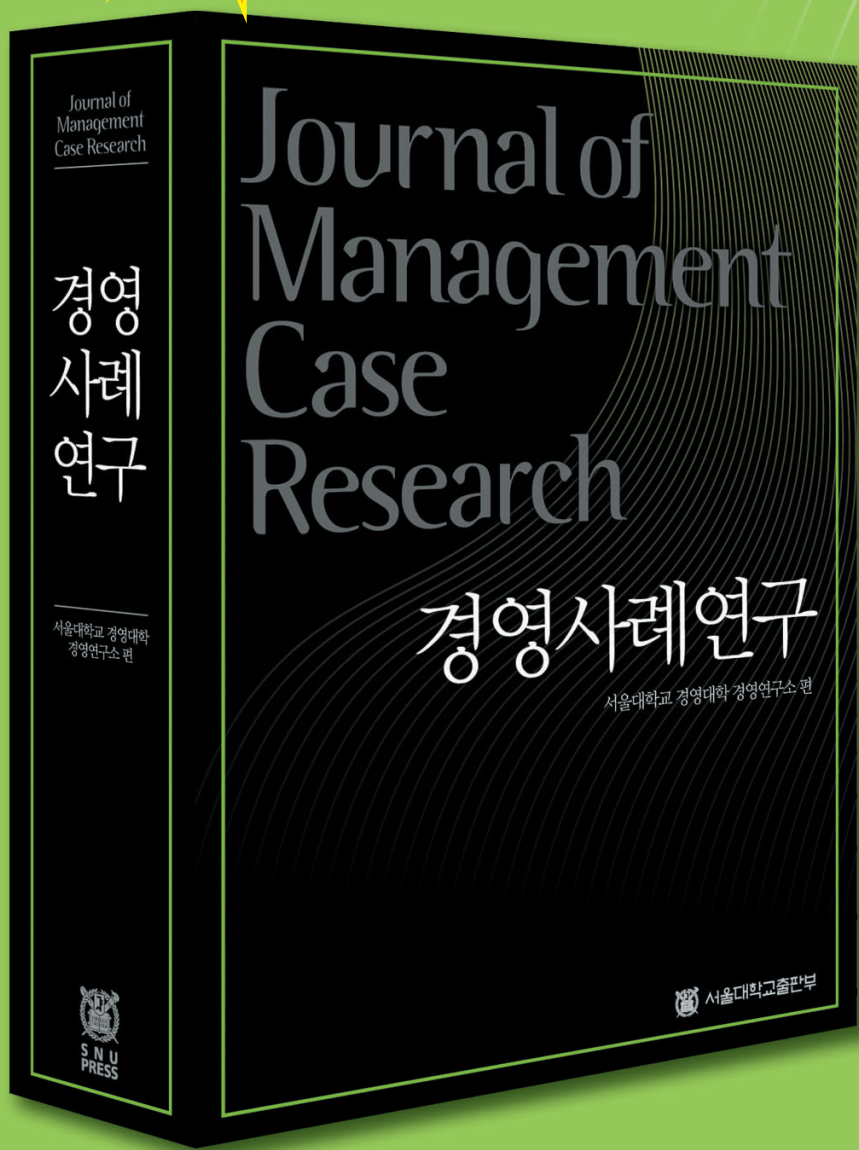
Journal of Management Case Research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진,
경영학도들이 개발한 경영 실무와
경영학 연구의 寶庫

특별 이벤트

책을 기증해 드립니다

•매월 독서 후기 참여자 中 10명을 선정하여
귀사(귀하)의 이름으로 기증해 드립니다.
e-mail전송, 500자 내외



유한킴벌리 · KTF(K-Merce) · 한국타이어 · (주)아이리버
NHN · MOBILIANS · 파크랜드 · 광동제약(비타500) · STX
(주)아모레 퍼시픽(설화수, O-Sulloc Tea House) · 대림(e-편한세상)
희연병원 · (주)좋은사람들 · KT(비즈메카) · 오리온 그룹 · 하이닉스
하나코비(락앤락) · 리노공업 · 삼성건설(래미안) · 교보자동차보험
두산(처음처럼) · 넥슨(카트라이더) · 서울시설공단 · Kosney
CJ 홈쇼핑 · 한국석유공사 · SK텔레콤(MeOn) · ECO · 엔투비
하나은행 · 한국주택저당채권유통화(KoMoCo) · 하나투어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編 —
가 격 : 150,000원 (4*6배판·양장·1300p)

발행처 : 서울대학교출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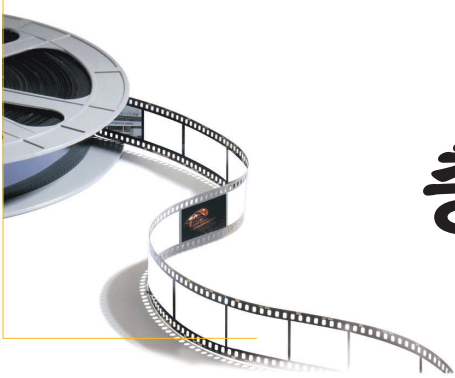
구입문의 : (02)888-6908 / FAX : (02)888-3406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 e-mail: mentor@snu.ac.kr

▶ 입금계좌: (농협) 079-17-050818 / 서울대출판부

나의 취재備忘錄



총무로의 전설 (中)



김 화

- 본회 논설위원
-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 영화평론가

1970년 3월의 어느 날 밤. 서울 총무로 입구 대연각 호텔 나이트클럽은 초저녁부터 촬영준비로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3월 하순의 쌀쌀한 밤공기와는 대조적으로 호텔 맨 위층에 자리 잡은 나이트클럽 안은 조명라이트의 열기와 눈에 보이지 않은 경쟁의 뜨거운 바람으로 가득 찼다. 정인엽 감독의 ‘결혼교실’

감독도 속은 ‘깜짝 쇼’ 文姬의 졸도

나이트클럽 장면 촬영장인 이곳에는 “신들을 출연시키기보다 더 힘들다”는 정상의 여배우 트로이카 문희, 남정임, 윤정희가 함께 출연하기 때문이다.

‘결혼교실’ 주연 男優는 申星一

당시에는 꼬박 밤을 샌 밤샘촬영이 다반사였고 이날 촬영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날 촬영은 자정부터 하기로 되었는데도 출연배우의 무게나 장면의 중요성, 초유의 화제성 때문에 긴장한 촬영 조명 등 스태프진들은 서너시간 전부터 나와 스탠바이 했고, 출연할 엑스트라들도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 밖에 제작부원과 배우의 메니저 미용사 등으로 플로어만 빼놓고 시장바닥처럼 복새통을 이뤘다.

이날 밤 촬영은 플레이 보이 재벌회사 부사장으로 출연한 신성일과 각자 속셈이 다른 독신클럽 세 아가씨인 문희 남정임 윤정희 세 톱 여배우가 나이트클럽에서 어울려 춤추는 장면이었다. 1967년부터 1971년까지 한국 영화계 여배우 판도를 주도했던 이들 세 여배우는 영화 출연 경쟁에서 유명 국내 영화계 수상 다툼, 홍보에 이르기까지 치열함의 정도를 훨씬 능가한 경쟁을 벌였다. 심지어는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는 이름순서에도 신경전을 쫓고 기자들에게 로비할 정도로 과잉반응과 살인적인 경쟁을 펼쳤다. 나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데뷔 순서로 이름을 쓴다. 문희는 1965년 이만희 감독의 ‘흑맥’으로, 남정임은 1966년 김수용 감독의 ‘유정’으로, 윤정희는 1967년 강대진 감독의 ‘청춘극장’으로 데뷔했다. 세 여배우는 1년 터울로 데뷔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데뷔순은 나이와 역순이었다. 문희(본명·이순임)는 1947년생이고, 남정임(본명·이민자)은 1945년생이며, 윤정희(본명·손미자)는 1944년생이다. 윤정희는 지금도 현역이지만 문희와 남정임은 1971년 결혼으로 은퇴했다. 남정임은 1992년 암으로 사망했다.

이름 순서까지 치열한 신경전

당시 남배우로는 경쟁자 없이 독보적인 존재로 군림했던 신성일과 정상의 트로이카 여배우가 동시에 출연하는 대연각호텔 나이트클럽 촬영은 영화 ‘결혼교실’의 하이라이트 신일뿐 아니라 총무로의 시선 집중을 받아 사전에 지방관권을 산 흥행사들도 모일 정도였다. 이 영화는 이런 화제성 때문에 크랭크인 하기



1970년 1월. 영화 ‘결혼교실’에 최정상 트로이카 여배우 문희, 남정임, 윤정희의 출연계약을 가까스로 성사시킨 뒤 이태원 신성일의 집에서 축하의 술잔을 부딪쳤다. 가운데가 신성일, 오른쪽이 정인엽 감독, 왼쪽은 필자.

최정상 트로이카女優들 불꽃 경쟁

같은 영화에 남정임·윤정희와 함께 출연

“저들보다 웃이 초라해”촬영 중 소동벌어

도 전에 사전 지방관권 장사로 제작비를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돈을 챙겼다. 이 영화의 제작자는 총무로에서 일본음식점을 하는 조면호였다.

밤샘촬영에선 해프닝 다반사

의기양양한 제작자와 감독은 서울에서 제일 좋다는 대연각호텔 나이트클럽을 하룻밤 통째로 빌린 것이다. 촬영 D아워인 자정이 가까워지자 정 감독과 주연배우들이 속속 도착했다. 신성일은 플로어에서 남정임과 차차차를 추면서 몸을 풀고 있었다. 미끈한 각선미를 자랑하는 남정임은 흰 색 미니스커트에 빨간색 블라우스가 너무 잘 어울렸다. 머리는 곱게 빗어 넘겨 한 가닥으로 묶었다. 윤정희는 구석진 의자에 앉아 미용사가 머리를 만지고 있는 가운데 거울을 보며 열심히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모직 원피스의 고전적이고 우아한 차림이었다. 치마 길이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온 미디였다. 윤이 나는 검정색 구두를 신었다. 남정임의 흰색 구두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촬영팀은 문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희는 다른 영화의 촬영을 가까스로 마치고 허겁지겁 대연각호텔 나이트클럽 촬영장에 도착했다. 메니저 조영길과 전속 미용사의 호위를 받으며 촬영장에 도착한 문희는 촬영장을 한 바퀴 돌면서 먼저 남정임과 윤정희 의상을 살폈다. 그러고 나서 머리 모양과 화장을 ‘결혼교실’ 컨셉에 맞게 고쳤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촬영팀과 진행팀은 조바심이 났다. 이러

다가 오늘 밤 촬영 분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면 밥줄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문희의 준비가 끝나자 슈팅에 앞서 리허설이 있었다.

마침내 기다렸던 촬영이 시작되었다. 플로어에서 신성일을 중심으로 정상의 세 여배우가 신나게 춤판을 벌였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1분 쯤 지났을까 갑자기 문희가 바닥에 꺾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졸도한 것이다. 촬영은 중단되고 문희를 병원으로 옮기느라고 한 동안 소란이 일었다. 당시는 통금이 있던 시기였다. 문희는 전에도 촬영장에서 가끔 졸도한 적이 있었다.

연약한 몸으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주일을 연속 밤샘 촬영한다면 철근도 쓰러졌을 것이다. 그래서 배우 협회에서 ‘밤샘 촬영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지만 유아무야로 끝났다. 1년에 200편 이상의 영화가 제작되고, 스타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그 때의 제작 상황으로는 불가피했다. 문희의 졸도로 그날 밤 촬영 스케줄은 차질을 빚었다. 문희를 빼고 촬영을 계속 했지만 감독은 콘티를 수정해야 했고, 제작자는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한참 뒤에 밝혀진 ‘사건’의 진실

문희의 그날 밤 졸도는 나중에서야 진실이 밝혀졌다. 건강상태와는 상관없는 그녀의 재치 넘친 순발력의 쇼였다. 남정임과 윤정희의 출연의상을 본 문희는 자신이 준비해간 의상이 너무 초라했다. 스크린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이 라이벌 두 여배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임을 직감하고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하여 졸도하는 척하고 쓰러져 그날 밤 촬영을 핑크낸 것이다. 평범한 머리로는 톱스타의 위치에 오를 수 없음을 새삼 확인했다.

요즘...



회우동경

· 가나다순



· 박기정(朴紀正) 회우 (전남일보 사장)=5월 8일 대전 호텔아드리아에서 열린 전국지방신문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또 14일에는 지역우수 인재양성과 산학간 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호남대학교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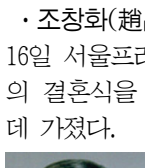
· 이경남(李敬南) 회우 (한국발전연구원장)=5월 16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金聖鎭 전 문화공보부 장관을 연사로 초청해 '박정희 시대의 재평가와 우리가 가야할 길'을 연제로 조찬강연회를 개최했다.

본 회
日誌
(5월)

- 8일 = 편집회의
- 9일 = 복지기금운영위원회
- 19일 = 제 20회 대토론회



· 임홍빈(任洪彬) 회우 =최근 온천 관광지 발전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온천수협회 초대 회장에 취임했다.



· 조창화(趙昌化) 본회회장=지난 5월 16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차남 시우 군의 결혼식을 양가 가족들만 모인 가운데 가졌다.



· 천상기(千相基) 회우 (경기대 초빙교수)=인터넷 종합 일간지 내외데일리뉴스(<http://www.ndaily.kr>), 내외환경뉴스·환경방송(<http://www.wge21.com>) 상임고문에 취임했다. 환경방송과 월드그린환경연합중앙회는 6월 23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 6회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 시상식을 갖는다.



故 이정석 전 회장 추모예배

대한언론인회 13, 14대 회장을 역임한 고 이정석 선생의 추모예배가 5월 17일 국립임실호국원에서 열렸다. 원로 언론인들과 지인들이 뜻을 모아 이루어진 이날 추모예배는 한중광(본회 이사) 장로가 인도했으며, 본회 최

창봉 명예회우를 비롯해 신우식 고문, 김성배·김영호 이사, 이순기 김은구 안평선 정창기 홍승국 회우와 이윤하 최동욱 김영호(전 DBS PD) 장명근씨 등 원로언론인들이 참례했다.

조창화 본회 회장은 묘소에 조화를 보내 고인의 뜻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 주소·전화 바뀌었습니다

- 정문식= 경기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대원효성 A 9단지 907동 1203호
- 조천용=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69-

- 10 로얄패밀리 B동 501호 우) 120-012
- 최종수=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7 서울 시니어스 가양타워 A동 1026호 우)157-839

산악회 소식



대모산 5월 산행 20여 회우 참가

대한언론인회 산악회(회장 안종우)는 지난달 24일 서울 근교 대모산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정기 산행을 가졌다.

이날 초여름의 화창한 날씨와 녹음이 우거진 숲속 길을 따라 해발

300m의 대모산을 회원들 모두 무사히 종주했다.

하산 후엔 생맥주 뒤풀이로 화합과 친목을 다졌으며, 이 날의 비용은 정운종 본회 이사가 모두 부담했다.



조창화 회장



김도진 부회장



문명호 부회장



신동철 부회장



이형균 부회장



홍원기 부회장

본회 회장단 발전기금 350만원 기탁

조창화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6명이 지난달 30일 발전기금 350만원을 기탁했다.

발전기금은 조 회장이 100만원, 김도진, 문명호, 신동철, 이형균, 홍원기 부회장이 각 50만원씩을 냈다.

■ 회비 내신 회우

- 2008년분 고덕환 구종서(09년포함) 김 철 문계준 윤기로(07년 포함) 이경식(07년 포함) 이상원 이재승(09년 포함) 정재호 조규진(06, 07년 포함)조천용 진철수(07년 포함) 최병요 최종명 황대연 홍원기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방송광고도 주춤

고유가애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악재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광고 시장도 주춤하고 있다. 5월 20일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따르면 올해 4월 방송광고비는 작년 동기 2천178억원에 비해 5% 감소한 2천7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업종별 현황을 보면 컴퓨터 및 정보통신 업종이 가장 많은 358억 원으로 전체의 17.9%를 차지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확! 달라졌습니다”



고객만족

1. 인터넷 예약

- 검사료 1,200원 할인받고, 예약 라인에서 빠르게 검사

2. 첨단장비 점검

- 자동차검사 전문가가 첨단장비로 각종 센서 등 주요 부품 점검
- ▶ 간접진단 발동 자동차용 내시경·전자제어 자기진단기 등에 의한 정밀검사

3. 기능종합진단서 발급

-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상세히 기록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차량관리에 활용
- ▶ 진단서는 필요시 인터넷으로 조회 및 출력 가능
- ▶ 리콜대상 여부를 조회하여 조치방법 안내

4. 검사 모니터링

- 편안한 고객 대기실에서 내차의 검사장면을 모니터로 직접 확인
- ▶ 자동차검사 전문가가 대신 운전하여 검사 실시

자동차검사 문의

1577-0990

Care For You

 중외제약

첫째도 둘째도 생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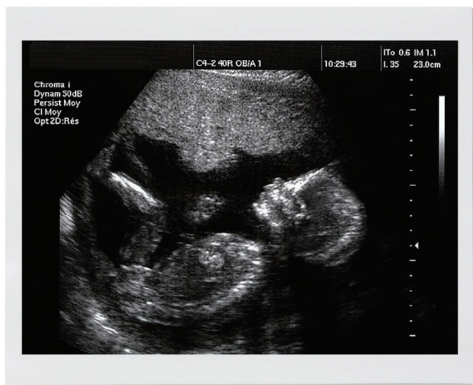
중외제약이 만들어가는 내일은
생명을 더 존중하는 내일입니다.
사람을 위해 약이 있고
생명을 위해 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외제약은 글로벌헬스케어 기업이 되기 위해
먼저 생명을 가장 존중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Global HealthCare Company – 중외제약



미래

- 중외제약은 수액제를 비롯한 필수약품 개발로 국민건강을 선도합니다.
- 중외제약은 글로벌 기준의 R&D기술력으로 획기적인 신약을 창제하고 있습니다.
- 중외제약은 감기약 화콜, 빈혈약 휘럼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 중외제약은 홀트장애인합창단 '영혼의 소리'와 '찾아가는 음악회' 후원 등 문화나눔을 실천합니다.
- 중외제약은 건강과 관련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글로벌헬스케어컴퍼니를 지향합니다.

[박지성의 집]



제 꿈이 시작된 집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늑하고 편안한...

그 곳엔 제가 원하는 모든 게 다 있었죠

세계적인 프리미어리그의

꿈이 시작된 그 집,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집입니다



위대한 내일을 짓습니다

Build the Great

